

경제

광주 수입차 4월 판매 사상 최대

4월중 118대 등록 ... 작년비 51% 급증
폴크스바겐 1위... '리콜' 도요타도 선전

광주지역 월간 수입차 판매대수가 잇따라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주지역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는 118대로 전월인 3월(101대)보다 17대 증가, 두 달 연속 100대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4월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폴크스바겐이 24대로, 지난달 20대에 이어 두달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도요타(16대), 혼다(13대), 포드(12대), 메르세데스-벤츠와 아우디(8대)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지역 수입차 시장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9년 100대가 판매됐던 수입차 시장은 2000년 165대, 2001년 268대, 2002년 494대, 2005년 551대를 기록했다.
2006년 742대, 2008년 907대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0대를 넘어서 1019대를 기록했다.

리 회복과 자동차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수입차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며 "일부 인기 차종은 없어서 못파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수입차 4월 판매량도 지난 3월 7102대보다 1.5% 증가한 7208대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4월 누적 판매대수도 2만7125대로 지난해 같은기간(1만6903대)보다 60.5% 늘어났다.



친환경 녹색산업 동북아 거점 구축을 위한 '호남권 광역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이 지난 7일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에서 열렸다.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과 박봉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임충식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등 참석자들이 선포식 이후 호남권본부 현관 앞에서 제막식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클러스터 자생력 확보 ‘홀로서기’해야”

광주에 온 한국산업공단 박봉규 이사장
“기술개발 등 100억대 프로젝트 지원할 터”

“클러스터 졸업제는 정부가 강제로 졸업시켜 지원을 끊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박봉규 이사장은 “아직 구체적인 퇴출·졸업 기준은 나오지 않았는데, 과제별 지원 규모를 줄이고 MC 활성화에 대한 운영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술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100억원 규모)는 정부의 R&D 과제에 선정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상과 위주의 상징적 클러스터 운영보다는 소규모 MC를 많이 운영하고 MC간 경쟁을 유도해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MC 참여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 즉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쏟았다.
그동안 5억~10억원 규모의 과제를 지원했는데, 과제별 지원 규모를 줄이고 MC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술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100억원 규모)는 정부의 R&D 과제에 선정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를 묶어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벌이게 된다. 이를 통해 자동차부품, 광산업, 조선산업의 특화 거점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기능적 측면에서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지역 특화 산업의 연계 강화, 공간적 측면에서 호남권에서 생산된 부품·모듈과 수도권·동남권 등 타 광역권 완제품·원자재 간 연계 강화, 주제적 측면에서 선도기업 유치 및 다양한 지원기관 간 협업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올해 국비 1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 이사장은 “호남권 광역클러스터의 성공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대승적 협력체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공단은 수석 코디너로 참여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여전히 어수선

비정규직 파업 속 도급사 13곳 직장폐쇄

금호타이어가 노사 공동평화선언과 신제품 출시 등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비정규직 파업과 도급사 직장폐쇄, 노조 집행부 탄핵 등 입단합 타결 이후 후폭풍이 시달리고 있다.
9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와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13개 도급회사는 지난 8일 오전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들 업체는 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도 직성공장에서 근무하는 자사 소속 직원이자 금호타이어 노조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300여명에 대해 사업장 내 출입 금지를 통보했다.
이들 노조원들은 금호타이어에서 환경미화원, 경비원, 제품검사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회사 측의 직장폐쇄 등에 반발해 곡성공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금호타이어 노사협상 타결 이후 도급회사들이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고 상여금을 200% 삭감하자 지난달 27일부터 광주·곡성공장에서 부분파업을 벌이다가, 같은달 30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비정규직 파업으로 어수선한 가운

금호타이어 일부 강경파 노조원들이 또 다시 노조 집행부 탄핵을 추진하는 등 노노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대응을 위한 현장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달 27일 노조원 2077명의 서명을 받아 집행부 탄핵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들은 임시총회 소집 사유를 “조합원의 단결과 권리를 저하시키는데 집행부가 앞장서 임원을 탄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집행부는 “탄핵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조합원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집권에만 눈이 멀어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며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해고자 복직문제도 노사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 금호타이어는 노사협상에 따라 정리해고자 189명에 대해 취업규칙 확인서를 받고 복직시켜 현재 184명이 복직했다. 하지만 공대위 소속 일부 노조원 등이 확인서 제출을 거부해 해고된 상태이며, 이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복직투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기업 회사채 급증

4월중 15개사 325억원... 작년보다 5배 늘어

광주·전남지역 4월 회사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에서 발행된 기업 회사채는 15개사, 3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개사·55억 원)에 비해 270억원, 비율로는 490%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동안 발행규모는 1개사 30억원이었으나, 4월에 대폭 증가했다. 이번 달 발행액은 1개사로 금호산

업 900억원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상환 회사채가 없었다.
1분기 동안 상환액은 ㈜한국투자 상호저축은행 1개사 300억원에 이른 다.
발행액 상위 3사는 남원건설㈜, 케이씨㈜, ㈜상업상호저축은행으로 각각 50억원에 달했고, ㈜대우에스엔티(40억원), 신원전자정밀㈜(20억원), 일일엔지니어(2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농협, 사료값 평균 5.1% 인하

농협은 최근 구제역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10일부터 사료 가격을 평균 5.1%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소 비육사료(25kg 기준)는 평균 5.4%, 젖소 사료는 평균 4.9%, 돼지 사료는 평균 4.1% 값이 싸진다.
농협은 가격 인하로 축산농가에 연간 약 10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작년에도 사료 가격을 다섯 차례 인하해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줬는데 올해도 구제역으로 위기에 놓인 축산농가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가격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Table with columns: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등위, 당첨금(원). Shows lottery results for the 388th draw.

팝콘복권

Table with columns: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당첨번호. Shows popcorn lottery results for the 201st draw.

Financial data summary including 코스피지수 (1,647.50), 코스닥지수 (499.71), 금리 (3.69%), and 원·달러 환율 (1,155.40원).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featur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al.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Sangmu Land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in various area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현대공인중개사' (Hyundai Real Estate) with detailed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부동산경제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Real Estate) featuring a wide range of properties and services.